

축 사

한국불교의 대표적 밀교종단인 진각종의 새로운 지도자로 회정 총인께서 추대되시고 회성 통리원장께서 취임하시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진호국가불사와 더불어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진각종의 눈부신 발전과 교도들의 적극적인 실천행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회원종단의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제12대 총인으로 추대되신 회정 정사님께서서는 두 차례에 걸친 통리원장직과 종단협의회는 물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등, 한국불교의 중요한 소임을 역임하시면서 불교발전을 견인해 온 산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아울러 제30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시는 회성 정사님께서서는 현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종단을 외호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두 분 정사님의 오랜 헌신과 정진, 그리고 앞으로의 기여에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법석에 동참하신 교계 지도자와 불자 여러분들도 진각종의 새로운 지도자가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수승하신 법력으로 국가와 사회가 상생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가적 현실은 국민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많은 걱정과 불안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의 수행정진이 새로워야

하고 이타자리의 정신으로 나 보다는 이웃과 사회,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불자들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천만 불자들의 정성과 인연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밝아져서 투명해지며 인류와 더불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각종단과 한국불교계가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부처님의 원력으로 우리들의 바람이 하루속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면서 총인추대와 통리원장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뜻 깊은 오늘의 공덕으로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월 11월 2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합장